

“정보 발굴·보호에 일생 걸었지요”

새 천년을 뛰는 불자 ⑤

송광사 정보박물관 학예연구관 한성욱

“현존하는 전통사찰의 경내·외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는 종단 차원에서 연차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해야 하며, 불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찰들은 전문기관에서 발굴조사를 자발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송광사 정보박물관 한성욱(38) 학예연구관은 사찰과 폐사지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불자다. 광주공원에서 문화재 밀반출·입을 감시하며 4년간 근무했던 ‘문화재 감시관실’을 떠난 그는 정보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현재 정보박물관을 개설한 사찰은 모두 23곳에 이른다. 그러나 학예연구관이 상주해 있는 사찰은 통도사, 송광사, 대흥사 등 7곳에 불과하다.

94년 전남 화순군 쌍봉사지 발굴 때 만난 고경성(송광사 정보박물관장)과의 인연으

로 일하게 된 한씨는 현재 송광사 박물관을 매장문화재 전문 박물관으로 키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여념이 없다. 매장문화재 보호에는 ‘발굴’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지만, 발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표조사나 시굴 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분포지역과 사료적 가치를 평가해 놓는 게 차선책이다.

“지난해 전남 화순군 만연사와 구례군 연곡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박물관 차원의 조사였다가 커다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사에는 50여 개의 말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23곳이 전통사찰이다. 만연사와 연곡사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일과중 한씨가 가장 정성을 쏟는 것은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전화다. 지표조사나 시굴을 해보자는 것이다. 불

전통사찰 지표조사 주력
복장 유물 관리에도 관심
“정보 관리 프로그램 절실”

사를 앞둔 사찰은 더할 나위도 없다. “스님들이 사찰 외형을 키우고 가구는 만큼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씨에 따르면 송광사 말사 중 불사를 계획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여러 곳 있지만,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한 사찰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씨는 지표·시굴조사를 의무화 하는 종합이 제정되고 또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정보문화재 관리와 행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외에도 한성욱씨는 복장유물 관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사찰 한 번 봉안된 복장유물을 꺼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금껏 ‘관리’의 개념을 도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씨는 “일본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정기적



으로 복장유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쥐나 해충에 의한 복장을 훼손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고종 능가사 주지스님의 요청으로 조사한 사천왕상 복장물 역시 설치유에 의한 훼손이 심각했다. 그래서 한씨는 요즘 복장물에 대한 교계의 정서를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짜내기 위해 불교 경전과 문헌 등의 자료를 탐독하기에 여념이 없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불교 미술업협회 탄신 100주년 기념식

불교미술 공용업협회(회장 신인수)는 1월 24일 불교 미술의 거장인 故 일섭 대불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고향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사에서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문도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문도의 결속과 상호 유대를 강화해 근대 불교미술의 터전을 마련해 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미술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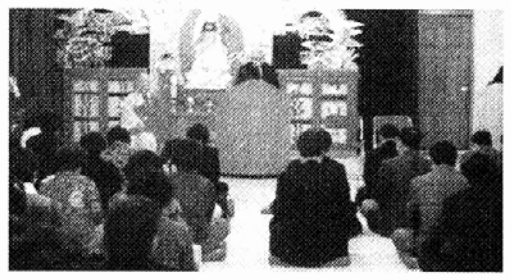
대구 불교지도자 신년하례회

대구 불교지도자 신년하례회가 1월 26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거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범룡스님을 비롯 보광원조실 화산, 원로회의 부의장 도원, 대적사조실 영봉, 동화사주지 성덕, 대구사원련회장 원명,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타,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스님과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불교 종단협 창립법회

대구지역 5개 불교종단으로 구성된 대구불교종단협의회가 1월 22일 보현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재출발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주지 성덕,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장 재민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 효암정사, 천태종 대구지부 대성사주지 문덕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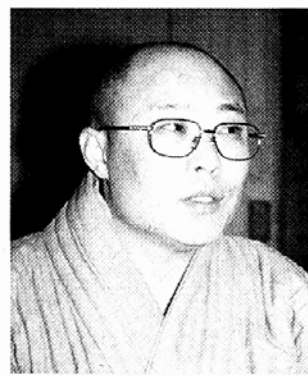


부산 불교실업인회 신년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서춘석)는 1월 25일 삼광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 서춘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6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서춘석 회장은 “2000년 새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불심으로 극복하고 불교 병원설립 등을 구체화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말했다.

“깨끗한 선거로 정토사회 구현”

총선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법안스님



“불교계가 2000년 총선 낙선·낙선운동에 나선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에 동참하고 정토사회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1월 21일 총선시민연대 공동 집행위원장에 선임된 법안스님(살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은 “시민단체가 낙선·낙선운동에 나선 것은 정치인이 자율적인 정치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불교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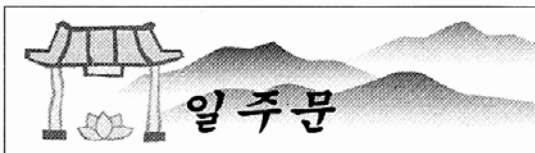
법안스님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낙천자 명단에 포함돼 보수 세력의 지장이 거센만큼 설날 이후 개신교 천주교 등이 참여하는 종교협의회와 연대해 종교계가 낙선·낙선 운동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스님은 총선시민연대와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승가회와 불교바로세우기재단에 실무간사 2명을 파견하는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진각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교육원 등 16개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2000년 총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월말에 열리는 실천승가회 총회에서 총선관련 안건을 심정, 회원들이 있는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총선시민연대의 명단 발표자 중심으로 낙선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스님은 불자의원 12명이 낙천자 명단에 선정된 것과 관련 “굳이 종교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불교계가 종교편향적인 인행을 일삼는 국회의원이나 농지법, 전통사찰보전법 등 불교관계법 입법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련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쳤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방생법회·고운사 순례
해광 법주사 주지는 14일 정초방생법회 및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방생법회는 안동법에서, 답사는 고운사와 봉정사로 간다.

부산지원 새해맞이 촛불제
해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은 9~11일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맞이 촛불제를 봉행한다.

불심사 창건 8돌 기념법회
해인 불심사 주지는 12일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 볼룸 3층에서 불심사 창건 8주년 및 회갑기념회를 갖는다.

은평구 비례선거모임 회장에
자용 서울 수국사 회주는 ‘은평구 비례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회장을 맡아 1월 27일 은평구청 5층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시하구불교연 신년하례
자인 부산 사하불교연합회 회장은 1월 27일 사이아 호텔에서 신임 회장단과 정회원이 하나되는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해동고 박장호·김지혜 학생에게

‘사랑이라는...’ 출판기념회
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연동회 부회장은 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강당에서 ‘사랑이라는 빛을 진남사’ 출판기념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한국언론인회 초대회장에
성대석 전 KBS 영커(SM미디어 대표)가 1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언론인회 초대회장에
성대석 전 KBS 영커(SM미디어 대표)가 1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향기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편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이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돌위를 놓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五分香을 찾아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친노하지 못하고 이례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평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계보리, 정향, 혜향, 해탈향을 얻어 해탈하지 않으면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가득하는 인연술 지어줍니다.

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기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도·중풍·폐·간·심정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옥의식 (목욕 재계향) 있습니다.

*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은 사쿠이 부처님께 공양하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몸모를 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맑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제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받은 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향을 가까이 했을가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들에게,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학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꽃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학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